

石谷 李圭峻의 『石谷散稿』 번역 연구(Ⅱ)

한국한의학연구원¹ · 부산대학교²
권오민¹ · 남성우² · 안상영¹ · 박상영¹ · 한창현¹ · 안상우¹ *

A Study on 『Seokgoksango(石谷散稿)』 of Lee-Gyujun(李圭峻)(Ⅱ)

Kwon Oh-min¹ · Nam Sung-woo² · Ahn Sang-young¹ · Park Sang-young¹ ·
Han Chang-hyun¹ · Ahn Sang-woo¹ *

¹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²Pusan National University

This article looks into Lee-Gyujun(李圭峻)'s life course, Confucian thoughts, and philosophical ideas on the Medicine of Boosting Yang(陽), by thoroughly translating and analyzing selectively the second half of Lee-Gyujun(李圭峻)'s 『Seokgoksango(石谷散稿)』. Translating his works is said to be necessary to fully understand the significance of the boosting-yang theory[扶陽論] in the historical landscape of Korean medicine, not to mention comprehension of the medical contents itself.

Through this translation and analysis, first, it is found that Lee-Gyujun(李圭峻) had visited Seo-Changyu(徐贊奎) for over 10 years and had great influence on qi(氣) monism. Second, within the Gihohakpa(畿湖學派), Lee-Gyujun was much closer to Horon(湖論) rather than Nanron(洛論). Third, during his days, he became well known across the peninsula through his medical fame. Last, he wrote down the unknown manufacturing technique of dried ginger[乾薑].

Key words : Lee-Gyujun(李圭峻), Gihohakpa(畿湖學派), Seokgoksango(石谷散稿), medical theory of boosting yang(扶陽論), Dong-uibogam(東醫寶鑑).

I. 序論

石谷 李圭峻과 東武 李濟馬는 각각 四象體質醫學과 扶陽論이라는 독창적 학설을 제시하여 20세기 전반에 걸쳐 한국의학의 지형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¹⁾. 특히 최근에는 의학이론적 측면에서의 『東醫寶鑑』의 의학적 성취와 근대기 의학이론의 전개·발달, 특히 이제마의 사상체질의학과 이규준의 부양론의 제창을 일관된 의학이론의 발달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²⁾. 이는 그간 한

* 교신저자 : 안상우. 대전시 유성구 전민동 461-24 한국한의학연구원.

E-mail : answer@kiom.re.kr Tel : 042-868-9442
접수일(2009년 10월 25일), 수정일(2009년 11월 20일),
게재확정일(2009년 11월 20일)

1) 김기욱 외 16인. 한의학통사. 고양. 대성의학사. 2006. pp. 400-401.

2) 고병희. 동의보감과 동의수세보원. 동의보감 UNESCO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세미나 자료집. 동의보감기념사업단. 2009. pp. 28-40.

국의학사에서 의학발달의 방향타 역할을 했던 의학 적 성취를 고립적으로 파악하여 전반적 시간 흐름 속에서 그 의미를 파악하는데 미진한 면이 있었던 것에 대한 반성이라 할 수 있다.

일관된 의학사 서술을 위해선 의학사적 사실들에 대한 자세한 사료 및 전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는 당위이다. 그간 사상체질 의학과 이체마에 대한 연구 성과는 상당히 축적되어 이체마의 철학적 배경과 의학이론의 제창과정은 자세히 밝혀져 있다. 반면 이규준과 부양의학론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출발단계에 있다. 80년대 이후 신진 한의사와 학자를 중심으로 이규준의 扶陽醫學에 대한 연구가 상당 정도 진척되었다. 이에 따라 많은 임상한의사들이 부양의학이론에 근거하여 의학 적 실천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규준 부양의 학의 철학적 배경이 되었던 그의 유학 철학과 세계 관에 대하여는 아직 이렇다 할 연구가 없는 형편이 다.

따라서 본 논고에서는 이규준의 생애와 부양의학 론 연구에 필수적인 그의 문집 『石谷散稿』에 대 한 방대한 번역 결과물 중 후반부를 간추려 신고, 번역과정에서 발견된 이규준과 부양의학에 대한 중 요한 발견을 보고하고자 한다. 번역과정 중 발견된 사실들은 향후 이규준의 생애와 가계, 학맥, 철학 및 의학적 견해 등 이규준과 부양의학 전반에 걸쳐 중요한 사료를 제시해 줄 것이다.

이는 이규준의 부양의학 이해에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나라 의학의 고유 한 특성이 어떻게 계승되고 확장·발전하였는지를 보 여주는 중요한 사례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이 글은 석곡 이규준의 『石谷散稿』을 두편으로 나누어 고찰한 논문 중 후편으로 ‘I. 연 구목적’ 장과 ‘II. 석곡 이규준의 생애와 저작’ 장은 전편의 것을 대부분 전제하였다.

II. 本論

권오민. 동의보감과 부양의학. 동의보감 UNESCO 세계 기록유산 등재 추진 세미나 자료집. 동의보감기념사업단. 2009. pp. 41-50.

1. 석곡 이규준의 생애와 저작

이규준은 조선말 1855년(哲宗 6년) 11월 10일 경상북도 迎日郡 東海面 林谷里에서 출생하였으며, 일본식민지배가 한창 진행 중이던 1923년 10월 10 일에 향년 69 세로 졸하였다. 최근까지 가정이 매우 빈한하였다고 알려져 있었으나, 한국한의학연구 원의 현지 조사에 의하면 건물 7채와 방앗간으로 가택이 구성된 것으로 보아 부유하였던 것으로 보 인다. 특히 ‘石谷書堂’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숙식을 하면서 노동과 학습을 병행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그의 증조부가 戶曹參判을 지낸 것으로 보아 유년 기의 교육적 여건도 그리 나쁘지 않았을 것으로 보 인다.

그의 經學 관련 저서로는 『六經』인 『毛詩』, 『尙書』, 『周易』, 『春秋』, 『周禮』, 『儀禮』에 注疏를 단 것이 있는데, 총 26책이다. 주요 목록 을 보자면 『經髓三篇』 1책, 『典禮』 1책, 『論語』 3책, 『孝經』 1책, 『唐宋古詩』 1책, 『後千 字』 1책 등이 있다. 이들은 주로 원문, 주석과 서 문 등을 자신의 견해에 따라 편집한 것들로, 사이사 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 가장 적극 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경학서는 『경수삼편』이다. 이 책은 『大學』, 『中庸』, 『禮運』에 의견을 첨부하여 편집하였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규준과 양명학의 관계를 엿볼 수 있다. 자신의 氣一元論과 心氣哲學을 서술한 책으로는 『石谷心書』 1책이 있다. 그의 유학은 당시의 영 남지역의 주류인 퇴계학맥에서 벗어나 氣哲學과 陽明學의 영향 하에 있었다. 이는 그가 부양의학을 제 창하는데도 일조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의학저술은 『東醫寶鑑』을 자신의 부양의학에 맞게 편집하고 간간히 자신의 의견을 삽입한 『醫鑑重磨』 3책, 『內經』의 문장을 자신의 부양의학론 에 맞게 수정하여 편집한 『素問大要』, 그리고 『本 草』 上下 2책이 있다. 이 외 서양의 역사와 문물에 대해 논한 『浦上奇聞』 1책과 수학에 관한 『九 章要訣』 1책이 있다.

본고의 저본인 『석곡산고』는 이규준 사후 60 년 정도 지난 1981년에 제자와 유족이 참가하여

경주사람 孫晉圭에 의해 간행되었다. 현재 경인문화사에서 1999년에 출간한 『한국역대문집총서』에 『石谷先生文集』이란 서명으로 영인되어 전한다.

2. 연구방법

『석곡산고』의 번역 결과는 글자 수 약 17만자, 한자 수 약 3만 8천자, 원고지 약 550여 매 정도에 이른다. 이번 논문은 石谷 李圭峻의 『石谷散稿』 번역 연구(I)에 이어 『석곡산고』 후반부를 중심으로 이규준의 생애와 철학, 의학의 파악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만 발췌하여 고찰·분석하였다. 후반부는 주로 이규준이 전국을 유람하면서 교유하였던 사례가 많이 나온 만큼 교유관계의 지역적 분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겠다.

3. 번역과 고찰

○ 祭徐進士子源文 진사 서 자원(子源)³⁾ 제문

嗚乎子源乎! 胡忍而死耶? 恭惟尊先君臨齋翁奮起緒業傾否之際, 接師門發蒙之傳, 倡率章甫... 余以遐鄉晚出, 聞既孤陋, 迹亦微寒, 乃敢冒拜于臨齋門下. 時子源纔弱冠, 立以拱手, 容貌甚端. 退而接語, 趨向可觀, 因得許心. 爾來十年間, 合席講討, 傾膽盡歡; 折簡通訊.

아, 자원(子源)이여! 어떻게 그대의 죽음을 참을 수 있겠는가.... 돌아가신 그대 아버지 임재(臨齋翁)께서는, 전통이 무너진 시대에 분발하셔서, 어리석음을 깨우쳐주는 사문(師門)의 전통을 잇고 유학자들을 창도하셨네. 나는 촌구석의 늦각이 학생으로 식견도 고루하고 행적도 별 볼일 없었는데, 마침내 임재 선생님 문하에 들어가게 되었네. 그때 그대는 겨우 약관의 나이로, 단정히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이 대단히 단정했었지. 물러나 대화를 해보니 그대가 무엇을 지향하는지 알 수 있어 마음을 허락하고, 그 뒤 10년 간 같은 자리에서 강론할 때는 온 마음을 털어 놓아 기쁘기 그지없었다.

3) 子源: 臨齋 徐贊奎의 아들이다.

[고찰]

이 제문은 이규준의 학문적 사승관계를 보다 명확히 보여준다. 최소한 이규준의 후기 유학사상의 경향을 잘 보여준다. ‘石谷 李圭峻의 『石谷散稿』 번역 연구(I)⁴⁾에서 고찰한 ‘祭徐都事臨齋先生文’에서, 이규준은 영남지역에서의 기호학과 계보를 栗谷 李珥 - 尤庵 宋時烈 - 梅山 洪直弼- 臨齋 徐贊奎와 立軒 韓運聖으로 정리하고 자신이 서찬규에게 배웠다고 밝히고 있다. 그간 이규준의 철학사상에서 기철학적 경향이 강하다는 점은 밝혀져 있었으나 그의 기철학의 역사적 사승관계는 정확히 밝혀지고 있지 않았는데 이 제문을 통해 이규준 사상의 기철학적 연원을 확실히 파악할 수 있다. 다만 서찬규를 자신의 철학적 스승으로 밝히고 있지만 어느 정도, 어느 기간 동안 교류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이 빈공간을 제문 ‘祭徐進士子源文’이 채울 수 있게 해준다. 위의 밑줄친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徐源文은 서찬규의 아들인데 15세일 때부터 이규준이 서찬규의 집안을 방문하여 그 후 10년간 강론을 같이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정리하면 서자원이 15세이던 때부터 어떤 형태이든 최소한 10년 이상 같이 강론하였는데, 이는 단순히 서자원과 강론하였다기보다 서찬규와 강론하는 자리였을 것이 확실하다. 이는 이규준이 학문적으로 교류한 경우 중에서 가장 길고 명확히 자신의 학문적 사승관계를 밝히고 있는 부분이다. ‘石谷 李圭峻의 『石谷散稿』 번역 연구(I)’에서도 살펴보았지만, 퇴계학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던 지역에서 이규준은 독특하게 기호학파의 노선을 따르고 있다. 그것도 기호지역의 학자들보다 더욱 철저히 기일원론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여기에 양명학의 기철학까지 포섭하고 있다⁵⁾. 이는 영남지역의 사상적 생태계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겠다.

○ 入伽倻山記⁶⁾ 가야산(伽倻山) 유람기

4) 권오민, 박상영, 안상영, 한창현, 안상우. 석곡 이규준의 석곡심서 번역 연구(I).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9. 22(3), p.183.

5) 권오민. 이규준의 심기철학과 부양론의 연관성 연구. 경희대학원. 2005. pp. 20-25.

叔玄既觀伽倻山，自伽倻，西北踰峻嶺，嶺摩天者三，寸步攀緣，終日行四十里，至茶田，見郭參贊俛字鍾錫。……玄曰，“外夷鴟張，志在易種，天道其然？”俛字曰，“陽復之理，不可盡也。但以今觀之，天亦似不當恤我國人。我國人皆有殺氣，必待人心和合，殺氣消盡，陽復可見矣。”……其高者捫摸性理之影響，各立朋黨之門戶，此亦聖人之所傳耶？故其人品實行，在漢人之下。不寧唯是，章句之士，率皆不辨菽麥，不知因乘爲島兒蠻女之醜笑，則中國之受制於外人，不亦宜乎？惟虛文是競，却他邦國大政，生民利病，專委於小人之手，使至賣鬻邦土，犧牲國民。由此論之，中國之亡，吾儒亦不得辭其責矣。”俛字曰，“事狀固然，子言過矣。”

숙현(叔玄; 작자)이 가야산(伽倻山)을 유람한 뒤에 가야산으로부터 서북쪽으로 험준한 봉우리를 넘었는데, 하늘에 닿을 듯한 봉우리가 셋이었다. 한치의 발걸음으로 기어올라 하루종일 40리를 걸어 다전(茶田)에 이르러 참찬(參贊) 면우(俛宇) 광종석(郭鍾錫)을 만났다. …… 숙현이 말했다. “외세의 오랑캐가 한창 흉악함을 떨치는 근본 목적은 종자를 바꾸려는 것이니, 천도(天道)가 정말 그렇게 하려는 것입니까?”

면우가 말했다. “양(陽)이 돌아오는 이치(7)는 없어질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의 상황을 보자면 하늘도 우리 백성을 돌보지 않는 듯합니다. 우리 백성들이 모두 살기(殺氣)를 띠고 있으니, 반드시 인심이 화합해서 살기가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양이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수준이 높은 자들은 성리학의 그림자나 메아리를 더듬어 각각 봉당을 만드니, 이것이 또한 성인께서 전수하신 것입니까? 이런 이유로 그 사람됨과 행실이 한(漢)나라 사람의 수준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문장에 구두나 떼고 해석이나 하는 선비들은 거의 모두 콩과 보리도 구분하지 못하여 그대로 서양을 따르는 것을 섬나라 오랑캐 아녀자들조차 비웃는다는 것을 모르니, 중국이 외국인에게 통

6) 이하는 기행문이 대부분이다.

7) 양이 돌아오는 이치: 陰이 극도에 달하면 양이 돌아온다는 것이다. 이것은 소인이 득세하여 세상이 혼란하더라도 결국 군자가 득세하는 시대가 온다는 말이다.

제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쓸데없는 문장 짓기만을 다루고 외국의 훌륭한 정치는 배척하면서 백성의 이익과 해악은 오로지 소인의 손에 맡겨 나라를 팔아먹고 국민을 희생양으로 삼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중국의 멸망에 대해서 우리 유학자들도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면우가 말했다. “상황이 참으로 그렇기는 하지만, 당신의 말씀은 지나칩니다.”

玄曰，“竊聞先生固守師說，以‘心卽理’三字，見斥於時人。其受時斥，何不曰‘心卽性’而曰‘心卽理’耶？”俛字曰，“時儒必曰‘心，氣也’，故師言‘心卽理’，要以救其偏耳。‘心卽性，性卽理’，固程子之言也。”曰，“既有程子之言，則何以見斥於時人乎？”曰，“時人以程子‘心卽性性卽理’之言，看做活語。”曰，“天下無氣外之理，亦無理外之氣。理氣非是二途，則心性果爲二物乎？”俛字曰，“吾意亦如子言，其奈世人之不信何？”

숙현이 말했다. “선생께서는 스승의 학설을 고수하여 ‘마음이 바로 이치[心卽理]’라는 세 글자 때문에 동시대인에게 배척받는다고 들었습니다. 동시대인의 배척을 받을 것 같으면 ‘마음이 바로 본성[心卽性]’이라 하지 않으시고 ‘마음이 바로 이치[心卽理]’라고 하십니까?”

면우가 말했다. “스승님 시대의 유학자들이 반드시 ‘마음은 기(氣)라고 했기 때문에 스승님께서 ‘마음이 바로 이치[心卽理]’라고 말씀하신 것이니, 이것은 편벽된 점을 바로잡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음이 바로 본성[心卽性]’이고 ‘본성이 바로 이치[性卽理]’라는 것은 정자(程子)의 말씀입니다.”

숙현이 말했다. “정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째서 당대의 유학자들에게 배척받았습니까?”

면우가 말했다. “그 당시 학자들이 정자의 ‘마음이 바로 본성이고 본성이 바로 이치[心卽性性卽理]’라는 말을 활어(活語)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숙현이 말했다. “세상에는 기(氣)를 벗어나 홀로 존재하는 리(理)가 없고, 마찬가지로 리(理)를 벗어나 홀로 존재하는 기(氣)도 없습니다. 리(理)와 기(氣)는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니, 심(心)과 성(性)은 과연 별개의 두 가지입니까?”

면우가 말했다. “내 뜻도 그대의 말과 같습니다만, 세상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으니 어찌겠습니까?”

倪宇曰, “吾嘗謂‘湖學勝於嶺學. 湖學雖有主氣之失, 猶爲一本; 嶺學雖曰主理, 未免二本之失’, 此言大見忤於時人. 退溪所言‘理發氣發’者, 盖互文以見之爾. 今人便以理氣更作二本看, 甚苦甚苦. 延平嘗謂朱子曰, ‘本不患其不知一, 分惟患其不能殊.’ 近有老儒某氏, 有言‘分不患其不能殊, 本惟患其不知一’, 吾愛此言爲救時之美譚, 而其子孫欲拔去之, 悶哉!” 遂返裝, 己酉仲夏月上旬也.

면우가 말했다. “내가 전에 ‘호남의 유학⁸⁾이 영남의 유학보다 낫다. 호남의 유학은 주기론(主氣論)을 주장하는 실수를 범했지만 그래도 근본은 하나이다. 영남의 유학은 주리론(主理論)을 주장하지만 근본이 두 개가 되는 잘못을 저질렀다.’ 했습니다. 이 말이 동시대 유학자들의 거센 비난을 불러왔습니다. 퇴계(退溪) 선생의 ‘리(理)가 발출(發出)하고 기(氣)가 발출한다[理發氣發]’는 말씀은 아마도 리(理)가 발출할 때 기(氣)도 발출하고 기(氣)가 발출할 때 리(理)도 발출한다는 뜻일텐데, 지금 사람들은 그 말씀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여 리(理)와 기(氣)를 따로따로 보아 두 개의 근본으로 여기니 참으로 염려스럽습니다. 연평(延平)⁹⁾ 선생이 주자에게 ‘근본이 하나라는 점을 모르는 것은 근심하지 않고, 오직 만분(萬分數)이 달라질 수 없음을 근심한다. [本不患其不知一 分惟患其不能殊]’ 했습니다. 근래 노유(老儒) 한 분이 ‘만분이 달라질 수 없음을 근심하지 않고, 근본이 하나임을 모르는 것을 근심한다. [分不患其不能殊 本惟患其不知一]’ 했는데, 저는 이 말이 시대를 구원하는 훌륭한 말씀이 될 수 있

때문에 매우 좋아하는데, 그 자손들은 이 말씀을 빼버리려 하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마침내 돌아갈 짐을 꾸렸다. 기유년(1909) 5월 상순이었다.

[고찰]

이 글에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주자학적 성리학을 따르는 당대의 지식인 계층에 대한 비판의식과 봉당 결성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다. 둘째, 寒洲 李震相이 제시한 ‘心卽理’설과 이규준이 주창한 心氣哲學과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이진상의 제자인 倪宇 郭鍾錫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진상이 ‘心卽理’라고 제시하지 않고 ‘心卽性’이라고 주장하였다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규준의 언급에 대하여, 광종석은 다음과 같이 스승을 변호한다. 세상의 유학하는 자들이 하나같이 心은 바로 氣라고 주장하고 있었기에, 자신의 스승인 이진상이 이 패단을 보완하고자 ‘心을 바로 理’라는 주장을 내놓은 것이라고 변론한다. 心을 理라고 주창하여 바로 기호학과 내에서 氣로 여겨 主宰하는 능력과, 物로서의 사사로운 측면인 形氣를 동시에 心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함이라 변론한다. 이에 대하여 이규준은 세상에 氣 밖에 따로 있는 理가 존재하지도 않고, 理 밖에 따로 존재하는 氣도 또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理와 氣는 별도의 다른 것이 아니고, 따라서 心과 性도 별도의 다른 두 존재가 아니라고 의견을 낸다. 이에 대하여 광종석이 동의를 표시한다. 위의 사실에서 우리는 이규준의 心氣學으로 대변되는 심성론과 ‘心卽理’로 대변되는 이진상의 심성론이 그리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규준의 氣는 氣안에 理의 법칙적 측면을 내재하고 있고, 이진상의 理는 理 자체가 능동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정립되었기에 사실상 이진상의 ‘心卽理’에서 ‘理’자를 ‘氣’자로 치환하면 바로 이규준의 심기철학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규준의 심성론과 이진상은 서로 마주 보고 있는 쌍둥이 한 쌍으로 볼 수도 있겠다.

셋째, 退溪 李滉의 ‘理氣互發說’이 태생적으로 가지는 문제점인 ‘二元論’적 딜레마에 대한 비판과

8) 이 단락에서 ‘湖學’의 의미를 광의의 ‘호남의 유학’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畿湖學派 내의 ‘湖論’과 ‘洛論’ 중 湖論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다. 특히 이어지는 西遊路程記 부분에서 洛論系의 조선말기 거두인 艮齋 田愚와 미묘한 신경전이 전개된 것으로 보아 기호학과 내에서 洛論을 배제한 湖論만을 특정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박학래, 艮齋學派의 학통(學統)과 사상적 특징 - 학문연원(學問淵源), 교유(交遊) 및 문인(門人) 분포(分布)를 중심으로-. 한국유교학회, 유교사상연구. 2007. 제 27집).

9) 延平: 朱熹의 스승 李侗이다.

극복의식이다. 광종석은 이황의 유학을 따르는 嶺學, 즉 退溪學派보다 李珥의 철학적 주장을 따르는 湖學, 경기와 충청 일대의 학문인 畿湖學派가 더 낫다고 평가한다. 이런 평가의 주된 이유는 바로 이황의 理氣互發說이 바로 세상의 근본이 둘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지만, 최소한 이이의 유학적 사고, 즉 ‘氣發理乘一途說’에선 그런 것을 찾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간단히 요약하면 ‘伽倻山日記’는 畿湖學, 退溪學, 寒洲學, 그리고 李圭峻의 유학적 사상을 대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각 학파간의 차이와 유사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 西遊路程記 서쪽 지역 유람기

辛丑三月十四日戊辰啓裝, 童子仁學從之. 三宿至大邱南山洞, 進見徐都事臨齋丈, 乞克齋先生墓碣文. 因與其胄孫進士辨論西曆·地球之非, 退而見徐進士丙五, 觀書畫之妙, 欲學不能. 留十日西行. 自達西橋, 併電線而口占一絕詩. 【詩見上】

신축년(1901) 3월 14일(무진일)에 여장을 꾸렸는데 동자 인학(仁學)이 따라 나섰다. 사흘을 묵고 대구 남산동(南山洞)에 도착하여 도사(都事) 서 입재(徐臨齋)¹⁰⁾ 어른을 뵈고 극재(克齋)¹¹⁾ 선생의 묘갈문(墓碣文)을 써달라고 청했다. 그리고는 주손(胄孫)인 진사 서 자원(徐子源)과 더불어 서양 역법과 지구가 둥글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해 변론하였다. 물러나 진사 서병오(徐丙五)에게 가서 서화(書畫)의 오묘함을 보고, 배우려고 했지만 제대로 하지 못했다. 열흘을 머문 뒤에 서쪽으로 갔다. 달서교(達西橋)로부터 전선과 나란히 가면서 입으로 절구 한 수를 읊었다. 【시는 위에 보인다.】

歷漆谷·仁同, 渡洛東江. 西過尙州, 登華嶺, 卽忠清慶尙間喬嶽也, 乃賦一律詩. 西過報恩, 由懷仁·清州. 西渡鵲川津, 至鎮川文泉洞, 訪田掌令良齋丈, 乃其次

10) 권오민, 박상영, 안상영, 한창현, 안상우. 석곡 이규준의 석곡심서 번역 연구(I).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9. 22(3). p.183.

11) 克齋: 李公旼이다. 진원인 ‘석곡 이규준의 석곡심서 번역 연구(I)’에 ‘祭克齋李先生’란 글이 실려 있다.

子舍也.

칠곡(漆谷)과 인동(仁同)을 거쳐 낙동강을 건넌다. 서쪽으로 상주(尙州)를 지나 화령(華嶺)에 오르니, 바로 충청도와 경상도 사이의 높은 산이다. 이때 읊시 한 수를 읊었다. 서쪽으로 보은(報恩)을 지나 회인(懷仁)과 청주(淸州)를 경유했다. 서쪽으로 작천진(鵲川津)을 건너 진천(鎭川) 문천동(文泉洞)에 이르러 장령 간재(良齋) 전(田) 선생을 방문했으니, 이곳은 바로 간재 선생의 둘째 아들 집이다.

留三日回踵. 從水原, 南出振威, 過牛舌原, 卽忠清道初境也. 歷稷山, 至天安金谷里, 見良齋田先生. 問『論語』志於道章, 至六藝之說則曰, “古禮已不用, 須從後賢. 樂以下, 則自宋以來, 未有說者, 此非儒家之急務也.” 良齋曰, “此非鄙人所及, 且置此說.” 峻曰, “吾聞先生, 曠世之才. 故敢來見, 今遜抑太過, 後生孰從以聞?” 良齋曰, “先生, 謂誰? 請勿復稱. 常有聞溢于見耳.”

서울에서 사흘을 머물고 발걸음을 돌렸다. 수원으로부터 남쪽으로 진위(振威)를 나서서 우설원(牛舌原)을 지나니, 바로 충청도의 초입이다. 직산(稷山)을 거쳐 천안(天安) 금곡리(金谷里)에 도착해서 간재 전 선생을 뵈었다. 『논어』의 지어도(志於道)장에 대해 여쭙다가 육예(六藝)¹²⁾의 설명에 이르러 선생께서 “고례(古禮)는 이미 쓰지 않으니 후대의 현자를 따라야 합니다. 음악 이하는 송나라 이후로 설명한 사람이 없었으니, 이것은 유가의 급선무가 아닙니다.” 하셨다. 간재가 말씀하셨다. “이것은 제가 언급할 바가 아니니, 우선 이 이야기는 내 버려두십시오.” 내가 말했다. “제가 선생께서는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재덕을 갖춘 분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감히 찾아뵈는 것인데, 지금 겸손함이 너무 지나치시니 제가 누구에게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간재가 말씀하셨다. “선생이 누구란 말입니까. 다시는 선생이라 부르지 말아 주십시오. 언제나 소문이 실제보다 지나친 것입니다.”

還至星州上谷, 見李都事晚求丈. 復至大邱, 入亭臺

12) 六藝: 禮, 樂, 射, 御, 書, 數.

洞, 候大岩孫先生. 乃北由八公山行路, 賦一律. 至永川泉谷, 訪李朗山存壘, 講論論孟問目. 一宿而還至家, 乃五月十一日也.

다시 성주(星州) 상곡(上谷)에 이르러 도사(都事) 이만구(李晩求) 어른을 뵈고, 다시 대구에 이르러 정대동(亭臺洞)으로 가서 대암(大岩) 손 선생께 문안 인사를 드렸다. 마침내 북쪽으로 팔공산(八公山)을 말미암아 길을 나서면서 읍시 한 수를 지었다. 영천(永川) 천곡(泉谷)에 이르러 낭산(朗山) 이존후(李存壘)를 방문하여 『논어』와 『맹자』의 문목(問目)을 강론했다. 하룻밤 묵고 집에 돌아오니 5월 11일이었다.

[고찰]

이 기행문에서 특히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은 艮齋 田愚와 관련된 부분이다. 주지하다시피, 전우는 제자가 3000명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을 만큼 조선 후기에서 일제초기까지 율곡을 비롯한 기호학과와 성리학적 사상을 계승하였고 기호학과 내에서 人物性同異論爭을 계기로 이루어진 湖論洛論 분화에서 洛論系 心性論에 속해 있다¹³⁾. ‘性尊心卑’ 또는 ‘性師心弟’ 등의 설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이규준의 심성론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견해이다. 전우는 면우 광종석이 속한 한주학과와도 첨예하게 대립하였으며¹⁴⁾, 그의 문집인 『艮齋集』에는 이규준의 질문

13) 박학래. 간재학과(艮齋學派)의 학통(學統)과 사상적 특징 - 학문연원(學問淵源), 교유(交遊) 및 문인(門人) 분포(分布)를 중심으로-. 한국유교학회. 유교사상연구. 2007. 제 27집.

14) 이종우(寒洲學派와 艮齋學派의 心性情論 논쟁과 그의 의의. 동양철학연구. 동양철학연구회. 제 42집. 2005)는 ‘心統性情’의 ‘統’자의 해석에서 두 학파의 대립이 시작되었다고 분석한다. 한주학파는 ‘統’자를 ‘主宰’의 의미로 해석하고 간재학파는 ‘兼’의 의미로 해석한다. 한주학파는 ‘心卽理’를 주장하기 때문에 결국 ‘心理主宰性情’이 되어 心 자체가 統制한 것으로 파악되고, 간재학파는 ‘心是氣’를 주장하는데, 氣로 이루어진 心이 性과 情을 주재할 수는 없고 兼하여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心에 도덕적 주재성을 부여할 수 없는 것이다. 이점에서 한주학과와 간재학파의 간극이 발생하고, 이는 이규준과 전우가 대립하게 되는 지점과 동일하다. 다른 측면에서 말한다면 한주학과와 이규준이 같은 이유로 간재학과와 대립하였다는 것은 한주학과와 이규준의 사상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말과도 같다.

에 답한 ‘答叔玄 圭峻’이라는 글도 있다. 앞의 入伽倻山記의 각주에서 필자가 ‘湖學’의 의미를 광의의 ‘호남의 유학’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畿湖學派 내의 ‘湖論’과 ‘洛論’ 중 湖論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고 분석하는데, 西遊路程記에서 당시 洛論系의 조선말기 거두인 전우와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는 것도 호론과 낙론의 의견 대립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心石齋 宋秉珣¹⁵⁾이 호론을 따르고 있는데 이규준이 송병순을 상당히 높이고 있는 데에서도 이규준이 호론에 가까운 의견을 가진 게 아닌가 한다¹⁶⁾. 전우의 제자 현곡 유영선은 이규준, 광종석, 조공섭을 한꺼번에 비판한 글을 남기고 있는 것도 전우와 이규준의 사상적 차이에 기인하였을 것이다. 전우의 제자 玄谷 柳永善은 李氏(圭峻)石谷心書辨(1946)을 지어 이규준의 철학적 견해 전반에 대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¹⁷⁾.

○ 金剛日記 금강산 유람기

唐人有言曰, “願生高麗國, 一見金剛山.” 則金剛, 天下山也. 石山人以其從弟脩, 客遊關東不返, 將往搜之, 因觀金剛山. 壬寅之四月初七日丁酉, 啓裝, 鄭先祚從之. 行至曲江四十里, 與舍伯及諸賢賦餞別. 【詩見上】

당(唐)나라 사람이 “고려에 태어나서 금강산을 한 번 보기를 원한다.” 했으니, 금강산은 천하의 명산이다. 내가 사촌 동생 수(脩)와 함께 관동 지역을 유람하다가 돌아오지 않고 그곳을 찾아 금강산을 유람하려 하였다. 임인년(1902) 4월 7일(정유일)에 여장을 꾸렸는데, 정선조(鄭先祚)가 따라 나섰다. 길을 떠나 곡강(曲江) 40리에 도착하여 형님과 여러 벗들이 전별연(餞別宴)을 베풀어 주었다. 【시는 위에 보인다.】

自竹嶺, 東南過豐基, 遇雨, 入金郎廳家. 信宿, 過

15) 이어지는 ‘湖遊日記’에 나온다.

16) 宋秉璿宋秉珣 형제와 田愚 문하와의 학문적 대립관계는 금장태의 『한국유학의 심설』(서울대출판부. 서울. 2003. pp.149-151.)을 참조하기 바람.

17) 유영선, 『玄谷集』(『한국역대문집총서』 영인본). 서울. 경인문화사. 1999.

榮州, 至安東府西河回洞, 訪見柳都事道性善汝氏, 緬西匡之遺風. 東出府東法興村, 見李鍾夏, 講鄉飲酒禮. 東過川前, 想鶴峰之餘澤. 至水谷大坪, 見柳震鎬, 出其考近庵公所撰『典禮通考』本稿, 以示之. 留二日, 涉見其大槩. 又得見『儀經傳通解』, 大坪, 誠禮家之大方也. 南出眞寶邑, 見許舫山【薰】舜歌氏, 四壁儲古今書數百卷. 因覽其所著書, 其宏詞博記, 當世寡儔. 於是求見『儀禮』古本, 乃唐板之未經觸手者也. 講論三日, 抄得大略, 而告歸至家, 乃五月二十三日也.

죽령에서 동남쪽으로 풍기(豊基)를 지나는데 비를 만나 김 낭청(金郎廳)의 집에 들어갔다. 이틀을 묵은 뒤에 출발해 영주(榮州)를 지나 안동부(安東府) 서편 하회동(河回洞)에 이르러 도사(都事) 도성(道性) 류선여(柳善汝)를 방문하니,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 선생의 유품을 아득히 느낄 수 있었다. 동쪽으로 안동부 동편 법흥촌(法興村)을 나서서 이종하(李鍾夏)를 만나 향음주례(鄉飲酒禮)를 강론했다. 동쪽으로 시내 앞을 지나면서 학봉(鶴峰) 김성일(金誠一) 선생의 유택(遺澤)을 떠올렸다. 수곡(水谷) 대평(大坪)에 이르러 류진호(柳震鎬)를 만나니, 그의 선친 근암공(近庵公)께서 찬집한 『전례통고(典禮通考)』 진본 원고를 꺼내 보여주었다. 이틀을 묵으며 그 책의 대강을 살펴보았다. 또, 『의경전통해(儀經傳通解)』를 볼 수 있었으니, 대평은 참으로 예가(禮家)의 중요한 지역이다. 남쪽으로 진보읍(眞寶邑)을 나서서 방산(舫山) 허순가(許舜歌)【이름은 훈(薰)이다.】를 만났는데, 사방의 벽이 모두 고급의 서적 수백 권으로 채워져 있었다. 내친 김에 그가 지은 글을 보니, 그의 풍부한 언어와 박학다식은 당대에 짝할 자가 적을 것이다. 이에 『의례(儀禮)』의 고본(古本)을 보여 달라고 해서 보니, 당나라 판본으로 사람들의 손을 타지 않은 것이었다. 사흘 동안 강론하면서 대강의 내용을 베껴 쓰고는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니, 그 날은 5월 23일이었다.

○ 湖遊日記 호서(湖西)-호남(湖南) 유람기

十五日, 還過懷德, 躡山亭嶺, 至沃川三街里宿. 【四十里】. 十七日, 東入活山洞, 進見心石齋宋都事先生秉珣氏. 峻復言曰, “鄙鄉有晚拙齋林翁, 梅

山洪先生之脚下也, 今來林奉植【字公珍】之王考也.

15일에 다시 회덕(懷德)을 지나 산정령(山亭嶺)을 넘어 옥천(沃川) 삼가리(三街里)에 이르러 묵었다. 【40리이다.】. 17일에 동쪽으로 활산동(活山洞)에 들어가 도사(都事) 심석재(心石齋) 송병순(宋秉珣)¹⁸⁾ 선생을 뵈었다. 내가 다시 “저희 마을에 만졸재(晩拙齋) 임 옹(林翁)¹⁹⁾이 계셨는데, 그분은 매산(梅山)²⁰⁾ 홍 선생(洪先生)의 계승자이며, 지금 저와 함께 온 임봉식(林奉植)【자(字)는 공진(公珍)이다.】의 할아버지입니다.

十九日, 復入活山, 告歸. 心石齋丈席, 手寫晚拙齋次韻以贈. 乃拜謝, 而至永同三十里宿. 明日乘車還大邱, 二十一日, 候大岩孫先生及禹擇窩汝七. 適文樓【章之】庄, 見曹兢燮【仲謹】·李基魯, 【聖宗】留數日. 還從八公山, 至永川泉谷, 訪見李存屋. 【善載】乃歸至家, 惟六月十三日.

19일에 다시 활산동에 들어가 집으로 돌아간다고 인사를 했다. 심석재(心石齋)²¹⁾ 어른께서 만졸재(晩拙齋) 시에 차운한 시를 직접 써서 주셨다. 마침내 절하여 하직인사를 드리고 30리 지점인 영동(永同)에 이르러 묵었다. 다음날 20일 기차를 타고 대구로 돌아와 21일에 대암(大岩) 손 선생(孫先生)과 택와(擇窩) 우여칠(禹汝七)께 문안 인사를 드렸다. 문박(文樸)【자(字)는 장지(章之)이다.】의 장원에 가서 조공섭(曹兢燮)²²⁾【자(字)는 중근(仲謹)이다.】과 이기

18) 송병순(宋秉珣)에 대하여는 권오민 외의 논문인 석곡 이규준의 석곡심서 번역 연구(I). 2009.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2(3). p.183.

19) 임헌회에 관해서는 권오민 외의 석곡 이규준의 석곡심서 번역 연구(I).(권오민, 박상영, 안상영, 한창현, 안상우.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9. 22(3). p.182.)의 ‘祭徐都事臨齋先生文’에 등장한다.

임헌회의 학문과 사상에 대하여는 권오영의 논문, 임헌회와 그 학파의 사상과 행동(한국학보. 일지사. 96권. 1999 pp.61-89.)을 참조 바람.

20) 매산 洪直弼에 대하여는 권오민 외의 석곡 이규준의 석곡심서 번역 연구(I).(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9. 22(3). p.183.)를 참조 바람.

21) 권오민 외의 석곡 이규준의 석곡심서 번역 연구(I).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9. 22(3). p.183.

22) 문박조공섭과 이규준의 교유관계와 사상적 유사성에 대하여는 권오민외의 논문, 『석곡 이규준의 석곡산고 번역

로(李基魯)【성종(聖宗)이다.】를 만나 며칠을 머물렀다. 팔공산(八公山)을 통해 돌아와 영천(永川) 천곡(泉谷)에 이르러 이존후(李存厚)²³⁾【선재(善載)이다.】를 방문하고, 집에 돌아오니 6월 13일이었다.

[고찰]

‘西遊路程記’, ‘金剛日記’, ‘湖遊日記’에서 이규준의 전국적 교류범위를 파악할 수 있다. 특히 기호학과와 퇴계학과로 대변되는 당시의 학문적, 정치적 대립관계를 초월한 이규준의 교류범위를 잘 보여준다. 西遊路程記에는 徐臨齋, 徐丙五, 田愚와의 교류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당시 기호학파의 정신적 지주라고 할 수 있었던 간재를 방문하여 다소 공격적인 질문을 던지고 간재가 약간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일화를 적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이규준이 전우와는 사상적으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과 함께 이규준의 대담한 성격을 엿볼 수 있다. ‘金剛日記’에서는 西厓 柳成龍과 鶴峰 金誠一의 고향을 돌아 보았고 舫山 許薰를 방문하여 머물며 강론한 여정을 적고 있는데 이도 이규준의 학문적 개방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湖遊日記에서는 송시열의 9대손으로서 후에 을사보호조약에 항거하여 자결하는 淵齋 宋秉璋의 동생인 心石齋 宋秉珣²⁴⁾과

曹兢燮, 文樸, 李存厚 등을 방문하거나 교류한 사실을 적고 있는데, 이 또한 이규준의 광범위한 교류관계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 湖上再遊日記 호서(湖西)·호남(湖南)을 다시 유람한 기록

十六日, 往觀江景浦. 金監役兄弟與金典祀三人, 并先之. 過十里草浦郊值雨, 宿桂田金議官永奎家. ... 凡留連連魯之間, 挾一句, 未見以文字道義相討者, 惟以藥方來覓者, 日十數人. 隨問隨答, 偷閒無暇矣.

16일에 강경포(江景浦)에 가서 구경하였다. 김감역(監役) 형제와 김 전사(典祀) 세 사람과 아울러 먼저 갔다. 10리 거리에 있는 초포교(草浦郊)를 지나다가 비를 만나 의관(議官)으로서 계전(桂田)에 사는 김영규(金永奎)의 집에서 묵었다. ... 연산(連山)과 노성(魯城) 사이에 머문 날짜가 열흘이나 되었는데 문장이나 도의(道義)를 토론하자고 오는 사람은 없고, 약의 처방을 알려달라고 찾아오는 자가 매일 열 명이 넘었다. 질문에 따라 대답하느라 한가할 틈이 없었다.

二十一日, 自仁山南踰骨嶺, 宿高山四十里. 明日, 南下三十里鳳翔市, 乃全州界也. 居民多以生薑圃爲業. 其種也, 春用一寸角蒔之, 夏則附生新薑, 其本薑亦不潰充長, 至秋採之. 新薑之味, 辛軟可茹; 老薑, 辛烈筋韌, 只合入藥, 惟乾薑用新薑. 薑之莖苗似竹葉, 其在東國, 惟鳳翔一坊蕃生, 若移蒔他土, 則其根爛, 薑亦靈草也.

21일에 인산으로부터 남쪽으로 골령(骨嶺)을 넘어 40리 지점인 고산(高山)에서 묵었다. 다음날 남쪽으로 30리 지점인 봉상시(鳳翔市)로 내려오니, 이곳은 바로 전주(全州)의 경계이다. 거주민은 대부분 생강 농사로 생업을 삼고 있다. 생강의 재배는 봄에 한 치 되는 것을 모종하여 여름이 되면 새로운 생강에 접을 붙여 키우고, 본래의 생강도 또한 문들어 지지 않고 자란다. 가을이 되면 캔다. 새로운 생강의 맛은 매우면서도 부드러운 먹을 만하고, 옛 생강은 맵고 질겨서 약으로만 쓸 수 있으며, 마른 생강을 만들려면 새로운 생강으로 만들어야 한다. 생강의 줄기와 싹은 댓잎과 흡사하다. 조선에서는 오직

연구(1)』(pp.168-169.)에 기술되어 있다.

23) 낭산 이존후는 한주 이진상의 재전제자이다. 이진상의 학문은 면우 광종석, 후산 허유, 매당 장석영, 대계 이승희 등에게 전해졌고, 광종석의 학문은 다시 회봉 하점진과 당천 이한룡, 낭산 이존후, 성화 이인재, 심산 김창숙, 중재 김황으로 이어졌다. 사실 이진상의 학문이 퇴계 이황에게서 연원하였다고 하여도 퇴계학파의 다양한 분화 과정에서 전통적 퇴계학과 내에서 사문난적으로 취급받기도 하였다는 것을 고려하여 이황의 학문의 극단적 경향으로 평가하기도 한다(유교문화관. 유교문화권목록. 입체선생문집. 출처: http://www.ugyo.net/mt/mdt/mkdt_heje.jsp?mdt_code=109&mdt_name_kor=%EC%9E%85%EC%9E%AC%EC%84%A0%EC%83%9D%EB%AC%B8%EC%A7%91&CODE1=03&CODE2=02&CODE3=02&CLSS=3).

24) 1910년 한일합방에 항거하여 자결하였다.

봉상시 한 곳에서만 잘 자라고, 다른 지역에 심으면 뿌리가 문드러지니, 생강도 역시 신령한 풀이다.

[고찰]

우리는 기행문 '湖上再遊日記'에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이규준이 충청지역을 방문하였을 때 매일 10여명이 찾아와 약방문을 청한 것으로 보아 생존 당시에 이미 이규준의 의학적 명성이 충청지역까지 자자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둘째, 21세기의 전라북도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鳳翔生薑이 품질면에서 전국 최고로 평가되는데, 이미 1900년대 초에 이미 봉상에서 생산되는 생강이 최고로 평가받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현재에는 생강을 단순히 건조하면 건강이 된다고 여기고 있는데, 우수한 건강을 생산하는 방법은 봄에 일단 모종을 파종하고 시간이 경과하면 모종 주위에 자라난 새로운 생강 덩어리가 자라난다. 모종 주위에 자라난 새로운 생강, 즉 新薑을 건조하여야 제대된 乾薑을 생산할 수 있다는 본초학적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 생강은 이규준의 부양의학에서 부양하는 핵심적인 약재이다. 따라서 이규준이 봉상에서 나는 품질 좋은 생강에 대한 관심을 나타낸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 祭文²⁵⁾ 제문 - 정만재

先生深懼夫三才大道之大不常焉, 既竭六十九年降世之精力, 講究乎書契以來文獻之足徵者, 體驗乎乾坤以內物化之可形者, 著之爲德行, 而發之爲世道憂, 乃著『心書』, 定心性·理氣說之是非. 撮醫經, 定滋陰降火術之得失. 作『奇聞書』, 定天文·地理反常人之怪誕. 講禮樂, 定彝倫廢壞人之不道. 作『神教文』, 定民物之報本獲福. 誦大易·『春秋』, 明大道一而爲大同世之本意, 此其憂道之大略也. 噫! 所謂定者, 先生之自先定者也, 不得人使之定也, 烏可及於世使之定者耶? 嗚呼痛哉! 以其道而胡其然也? 先生之始也; 以憂道之異於當世, 禍恒及於九死之濱, 且其終也. 祖宗壙土, 不得自保; 三皇五帝之道, 亦沈沒於雜教之下. 然則斯道之將存將廢, 天之命也; 先生之適來適去, 亦天之命也, 其於命

25) 祭文과 墓碣銘은 『石谷散稿』의 부록 부분이다.

復何爲哉?

선생께서는 천지인(天地人) 삼재(三才)의 위대한 도리가 완전히 무너진 것에 대해 깊이 두려워하셔서 69년 삶의 정력을 다 쏟으셨습니다. 서계(書契) 이후 문헌에서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을 강구(講究)하시고 천지 사이에 형체를 갖추고 있는 만물에서 체험하여 덕행으로 드러내시고 세도(世道)를 근심하는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석곡심서(石谷心書)』를 지으셔서 심성설(心性說)과 이기설(理氣說)의 잘못을 확정하시고, 의학서의 핵심을 총괄하여 '음을 늘리고 양을 줄이는[滋陰降火]' 학설의 잘못을 확정하셨습니다. 『포상기문(浦上奇聞)』을 지으셔서 천문과 지리가 인도(人道)에 반대가 되는 허탄한 설명에 대해 잘못을 지적하시고, 예악(禮樂)을 강구하여 인간의 떳떳한 본성을 무시하는 자들의 부도덕함을 꾸짖었으며, 『신교문(神教文)』을 지어 백성이 조상에 보답해야 복을 받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주역』과 『춘추』를 강론하여 대도(大道)는 하나이고, 그것이 대동(大同) 세계의 본래 의미라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이것이 선생께서 도(道)를 걱정했던 내용의 대략입니다. 아! 이른바 확정하고 바로 잡았다는 것은 선생께서 스스로 먼저 정하신 것이요, 다른 이가 정하도록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어찌 세상이 그렇게 정하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아, 슬픔입니다! 그 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찌서 그러한가 한 것이 선생의 처음 뜻이었고, 도(道)를 근심하는 것이 동시대와 다르면 재앙이 항상 저승의 언저리까지 이르니, 이 또한 선생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 받은 강토를 보존할 수 없었고 삼황오제(三皇五帝)의 도리도 잡스러운 교리에 침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유학이 존재하거나 침체되는 문제도 하늘의 명령이고, 선생께서 이 세상에 오시거나 가시는 문제도 하늘의 명령이니, 그런 천명에 대해서 도대체 어찌하겠습니까?

[고찰]

『石谷散稿』의 부록인 이 祭文에서 우리는 이규준의 제반 저작의 집필의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고, 또한 이규준 유학사상과 의학사상에 대한 핵심

적인 내용을 문인의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규준은 『石谷心書』를 통해 心性說과 理氣說의 폐단을 설파하려 하였고, 『素問大要』를 지어 朱丹溪 이후의 ‘滋陰降火’의 폐해를 바로 잡으려 하였다. 이규준은 자신의 세계관을 중심에 두고 『浦上奇聞』을 지어 새로 전래된 천문과 지리 지식을 비판하였다.

○ 墓碣銘 묘갈명

先生姓李氏，諱圭峻，字叔玄，學者稱石谷先生，貫慶州。新羅楊山村長瓢岩公諱調平，其始祖也；高麗文忠公益齊先生諱齊賢，其中祖也。高祖諱圭遜，壽階嘉善。曾祖諱福元，亦嘉善。祖考諱進旭，考諱億榮，妣金海金氏，以哲宗乙卯十一月十日生迎日郡東海面林谷洞。

선생은 성이 이씨(李氏)이고 이름이 규준(圭峻)이며 자(字)는 숙현(叔玄)으로, 학자들이 석곡 선생(石谷先生)이라 부른다. 본관이 경주(慶州)로 신라 양산촌장(楊山村長) 표암공(瓢岩公) 이알평(李調平)이 시조이고, 고려 문충공(文忠公) 익재 이제현(李齊賢) 선생이 중조(中祖)이다. 고조(高祖) 이규손(李圭遜)은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이르렀고, 증조(曾祖) 이복원(李福元)도 가선대부에 이르렀다. 조고(祖考)는 이진욱(李進旭)이고, 아버지는 이억영(李億榮) 어머니는 김해(金海) 김씨로 철종(哲宗) 을묘년(1855) 11월 10일에 영일군(迎日郡) 동해면(東海面) 임곡동(林谷洞)에서 태어났다.

聰睿絕倫，自經史，以至諸子百家，靡不貫穿。遂歷訪國中老師宿儒諸賢，問其所嘗疑難於中者，而終無得焉，則以詩爲歎，有‘千里求師計又差’之句。於是潛心研鑽，筆之於書，易則有『圖書解』，禮則有『訂疑』，詩書則有『演義』，春秋則有『讀法』，皆發明前人之所未發。又有『浦上奇聞』、『石谷心書』等作，已行于世。

총명함이 대단히 뛰어나서 경서(經書)와 역사서로부터 제자백가(諸子百家)에 이르기까지 모두 통달했다. 드디어 나라 안에 생존해 있는 스승과 학자 등 훌륭한 분들을 두루 방문하여 평소 마음속에 풀리지 않은 의문에 대해 물었다. 대답을 들어도 끝내 이해되지 않으면 시를 지어 탄식하여 ‘천리 멀리 스

승 구하나 계획은 어긋났지[千里求師計又差]’라는 구절이 있었다. 그래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연구하여 책에 기록했다. 『주역』에 관해서는 『도서해(圖書解)』를, 예(禮)에 관해서는 『정의(訂疑)』를, 『시경』과 『서경』에 대해서는 『연의(演義)』를, 『춘추』에 관해서는 『독법(讀法)』을 지었으니, 모두 이전 학자들이 밝히지 못한 부분을 밝혀 낸 것이다. 또, 『포상기문(浦上奇聞)』, 『석곡심서(石谷心書)』 등의 저작이 이미 세상에 간행되었다.

蓋我東學者，專主『永樂大全』，少有背於程朱之說，則至律以斯文亂賊。先生則治古註疏，而參用大全，故不能無違於程朱之旨。且深疾俗儒曲士色莊者之爲，往往有矯枉過直之論，聞者莫不驚駭，至有加以怒罵者。然先生益篤信已見，而無所恤。嘗曰，‘吾於醫學，亦多革古人之說，而試之無差，故人皆信之。至於心性之學，則無跡可徵，故感懷然疑，是可歎也。’昔癸亥春夏之月，圭詰從先生受禮易，時則先生已憊矣。然誨人之暇，手不停寫，蓋知其年壽之迫也。竟以是年冬十月十一日，考終于寢，享年六十九。以翌年四月，葬于長鬢面竹井里華柱山西坐之原。配金海金氏九女，後先生十八年庚辰歿，合祔于左。

우리 조선의 학자는 오로지 『영락대전(永樂大全)』을 오로지 받들어 조금이라도 정자(程子)와 주자(朱子)의 학설에 위배되면 사문난적(斯文亂賊)으로 지목하여 혹독히 다스리기까지 했다. 선생은 옛 주소(註疏)를 주로 연구하고 『영락대전』을 (검하여) 참고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정자와 주자의 뜻에 위배되는 점이 없을 수 없었다. 또한 속된 유학자, 율통성 없는 선비, 겉모습만 번지르한 자들의 행위를 심하게 미워하여 종종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 지나치게 바른 논의를 하셔서 듣는 자들은 모두 깜짝 놀라고, 심지어 화를 내며 욕을 하는 자도 있었다. 그러나 선생은 더욱 당신의 소견을 믿고 신경 쓰지 않았다. 선생께서 일찍이 “내가 의학에 대해서는 대부분 옛 의학자의 학설을 고치고, 임상에 시험했을 때 오류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나를 믿었다. 성리학에 대해서는 증거로 삼을 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의심하니, 이것이 한탄스럽다.” 했다. 지

난 계해년(1923) 봄과 여름에 내가 선생을 뵈고 예(禮)와 『주역』을 배웠는데, 그때 선생께서는 이미 몸이 좋지 않으셨다. 그러나 제자를 가르치는 여가에 글쓰기를 멈추지 않으셨으니, 아마 임종이 임박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일 것이다. 그 해 겨울 10월 11일 침소에서 운명하셨으니, 향년 69세이다. 다음 해 4월에 장기면(長鬢面) 죽정리(竹井里) 화주산(華柱山) 유좌(西坐)의 언덕에 장사지냈다. 아내 김해 김씨 범(凡)의 따님은 선생이 운명하시고 18년 뒤 경진년(1940)에 운명하셔서 선생의 묘소 왼편에 합장했다.

今距先生之歿，已五十年矣²⁶⁾。將豎碣于墓，以余嘗及門之故，屬以顯刻之文，諱無容辭。然樞衣於門牆之末，爲日無多，且年未弱冠，終不免不賢識小之列，則其於全體大用，安能有所闡明也？略以管窺，則蓋其學絕無師承，自得於聖賢傳中者爲多，而贈諸生之言有曰，“我欲心游黃老，行寸²⁷⁾孔子，取舍在爾。”此可以知先生之本末也已。

지금 선생이 별세하신지 이미 50년이 되었다. 장차 묘소에 묘갈(墓碣)을 세우려고 하는데, 내가 일찍이 문하에서 배웠다는 이유로 묘갈문(墓碣文)을 쓰라고 하니 의리상 사양할 수 없었다. 그러나 문하에서 수학한 날이 적고 나이도 약관(弱冠)에 이르지 않아 끝내 식견이 좁은 무리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선생의 온전한 체(體)와 큰 용(用)에 대해서 어찌 천명할 수 있겠는가. 거칠게나마 나의 좁은 소견으로는, 선생의 학문은 직접 어떤 스승에게 수학한 것이 전혀 없고 스스로 성현(聖賢)이 전수하신 것에서 터득한 점이 많았다. 여러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나는, 마음으로는 황제(黃帝)·노자(老子) 등의 도가(道家)에서 노닐고, 공자(孔子) 등의 유학(儒學)을 실천하고 싶네. 취사선택은 자네들에게 달린 문제네.” 하셨다. 여기에서 선생이 지닌 학문의 본말(本末)을 알 수 있다.

26) 矢 : 원문에는 ‘矢(시)’로 되어 있는데, 의미상 ‘矣(의)’가 되어야 한다.

27) 寸 : 원문에는 촌(寸)으로 되어 있는데, 의미상 ‘호(乎)’가 되어야 한다.

[고찰]

昌山 曹圭喆²⁸⁾이 쓴 이 墓碣銘은 이규준의 가계와 학문을 가장 요약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墓碣銘이 이규준의 가계로 시작되는데 고조부와 증조부가 嘉善大夫를 지낸 것으로 되어 있다. 향간에 이규준이 천한 신분이라서 당시의 양반층과 그들의 이데올로기적 기반이었던 성리학에 대하여 비판적이었던 이야기의 있으나, 墓碣銘과 후손의 증언에 의하면 상당한 사회적 지위를 유지한 양반층 가문이었음을 알 수 있다.

曹圭喆은 이규준이 明代 永樂帝 때 편찬된 永樂大全을 따르지 않아 斯文亂賊으로 취급받았다고 적고 있고 이는 朱子와 程子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 하나를 전하고 있다. 바로 이규준이 의학과 성리학에 대하여 대비적으로 언급한 말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규준은 자신이 옛 의학자의 의학설을 대부분 개정하였지만 임상에서 직접 시험하여 줄 수 있어서 별로 반발이 없었지만 성리학은 마땅히 증험할 방법이 없어서 이 점은 매우 한탄스럽게 생각하였다고 한다. 이는 한말 개화기시기에 유학자들이 한의학에 투신하였던 시대적 추세를 설명해주는 구체적인 자료라 하겠다.

마지막으로 曹圭喆은 자신과 이규준 사이의 사승관계에 대하여 밝히고 있다. 자신이 약관의 나이에 이규준에게 나아가 배웠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미 당대에 이규준의 명성이 자자하였다는 것을 방증하는 자료라 하겠다. 잘 알려진 사실은 아니지만 조규철은 해방이후 한국한문학계에 지대한 영향을 행사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III. 結論

28) 昌山 曹圭喆은 우리나라 민족문화추진위원회에서 한문고전을 현대국어로 번역하는 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인물이다. 『韓國文集叢刊』으로 대표되는 국역사업과 국역자 양성 사업에는 성낙훈·하성재·신호열·이병도·양주동·조지훈·윤남한 등과 함께 조규철이 초기에 참여하여 기틀을 다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출처

:<http://blog.naver.com/opjd1ucg3v?Redirect=Log&logNo=90312024>).

이 글은 전호에 실린 ‘석곡 이규준의 석곡심서 번역 연구(I)’에 이어 석곡 이규준의 문집인 『석곡산고(石谷散稿)』의 후반부를 선택적으로 번역, 고찰하였다.

첫째, 석곡 이규준의 석곡심서 번역 연구(I)에서 이규준의 학문이 퇴계학맥이 아닌 기호학맥에서 출발하였고, 이규준 자신이 자신의 학문 연원을 栗谷 李珥 - 尤庵 宋時烈 - 梅山 洪直弼- 臨齋 徐贊奎로 밝히고 있지만, 서찬규와 얼마동안, 어느 정도 깊게 교류하였는지 명확치 않았다. 이번 후반부 번역에 들어 있는 ‘祭徐進士子源文’에서 이규준과 서찬규는 최소 10년 이상 문인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둘째, ‘入伽倻山記’와 ‘西遊路程記’에서 畿湖學派 내에서 人物性同異論爭으로 시작된 湖洛論爭 속에서 洛論을 계승하는 良齋 田愚와 湖論를 계승한 淵齋 宋秉璿·心石齋 宋秉珣, 寒洲學派, 그리고 李圭峻의 상호관계에 대하여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셋째, ‘湖上再遊日記’에서 이규준의 의학적 명성이 생전 당시에 이미 충청, 전라지역까지 널리 알려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알려져 있지 않았던, 전통적 乾薑제조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수한 건강을 생산하는 방법은 봄에 일단 모종을 파종하고 시간이 경과하면 모종 주위에 자라난 새로운 生薑 덩어리가 자라나는데, 모종 주위에 자라난 새로운 생강, 즉 新薑을 건조하여야 제대된 乾薑을 생산할 수 있다는 본초학적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에 기술한 새로운 밝혀진 사실들과 전편 ‘석곡 이규준의 석곡심서 번역 연구(I)’의 결론과 연결시켜 본다면, 석곡 이규준의 사상과 부양의학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줄 것으로 보인다.

參考文獻

<논문>

1. 권오민, 박상영, 안상영, 한창현, 안상우. 석곡 이규준의 석곡심서 번역 연구(I).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9. 22(3). p.182, 183.

2. 권오민. 이규준의 심기철학과 부양론의 연관성 연구. 경희대학교학원. 2005. pp. 20-25.

3. 권오영. 임헌희와 그 학파의 사상과 행동. 한국학보. 일지사. 96권. 1999. pp.61-89.

4. 박학래. 간재학파(良齋學派)의 학통(學統)과 사상적 특징 - 학문연원(學問淵源), 교유(交遊) 및 문인(門人) 분포(分布)를 중심으로-. 유교사상연구. 한국유교학회. 제 27집. 2007.

5. 이종우(寒洲學派와 良齋學派의 心統性情論 논쟁과 그 의의. 동양철학연구. 동양철학연구회. 제 42집. 2005.

<단행본>

1. 금장태 저. 『한국유학의 심설』. 서울. 서울대출판부. 2003. pp. 149-151.

2. 김기욱, 김남일, 김도훈, 김용진, 김홍균, 김훈, 맹용재, 박경남, 박현국 외 16인 저. 한의학통사. 고양. 대성의학사. 2006. pp. 400-401.

3. 김두중 저. 한국의학사. 서울. 탐구당. 1966. p. 463.

4. 유영신. 『玄谷集』(『한국역대문집총서』 영인본). 서울. 경인문화사. 1999.

5. 이규준 저. 석곡산고(영인본). 서울. 경인문화사. 1999.

<기타>

1. 고병희. 동의보감과 동의수세보원. 동의보감 UNESCO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세미나 자료집. 동의보감기념사업단. 2009. pp. 28-40.

2. 권오민. 동의보감과 부양의학. 동의보감 UNESCO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세미나 자료집. 동의보감기념사업단. 2009. pp. 41-50.

3. 유교문화관. 유교문화권목판, 입제선생문집. [cited 2009 Sept 14]: Available from URL: http://www.ugyo.net/mt/mdt/mkdt_heje.jsp?mdt_code=109&mdt_name_kor=%EC%9E%85%EC%9E%AC%EC%84%A0%EC%83%9D%EB%AC%B8%EC%A7%91&CODE1=03&CODE2=02&CODE3=02&CLSS=3.

4. 무명의 블로그(민족문화추진회 인용)[cited 2009 Oct 4]: Available from: URL: <http://blog.naver.com/opjd1ucg3v?Redirect=Log&logNo=90312024>).